



미술, 뉴에이지를 만나다

뉴에이지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이미지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유명 미술작품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과 숨은 이야기, 유명 화가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며 뉴에이지 음악가들이 전하는 음악적 메시지와 그들의 음악적 삶을 반추할 수 있다.
양한수 지음 / 시공사 발행



모형 속을 걷다 - 이일훈의 건축 이야기 -

이 책은 20여 년간 건축판에서 일해온 건축가 이일훈의 그동안 설계한 작품들을 되돌아보며 써내려간 건축 이야기인 동시에 건축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삶 이야기이다. 저자는 '채 나눔'이라는 설계 방법론을 그의 작품에 담았다. 채 나눔은 '불편하게 살자, 밖에서 살자, 늘려 살자'. 이일훈 지음 / 솔출판사 발행



어린이 장자

장자는 많은 부분이 우화로 이루어져,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비굴함, 오만함과 추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 장자'로 어려운 철학이 아닌 우스우화처럼 재미있고, 어린이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지혜 보따리라 할 수 있다.
이규경 글·그림 / 효리원 발행



편집이란 어떤 일인가

1969년 고단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편집의 길을 걸어온 일본의 노 편집자가 정리한 편집 실무 지침서. 서적 편집자가 하는 일의 실재를 저자의 35년간 체험을 바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하고 있다.
와시오 겐야 지음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발행



사로잡힌 영혼 맘루카

19세기 영국 지배하의 이집트 카이로, 작은 국제사회를 매료시킨 시대를 앞서간 한 젊은 여성 사진가의 도약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20세기 후반 일제 강점기의 한국 사회와 흡사한 이집트 격동기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한 가족사를 애정 어린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
로베르 슬레 지음, 윤은오 옮김 / 아테네 발행



벽-건축으로의 여행

2001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 번역되어 큰 호응을 얻은 책. 지은이는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에 중점을 맞추어 벽이 우리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며 발전되었는지를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면서 시·공간 여행을 이끌어간다.
에블린 페레 크리스텔 지음, 김진화 옮김 / 놀와 발행

3월의 새로 나온 음반



장월중선의 음악세계

국립민속국악원 기획 / YBM 서울음반 발매

국립민속국악원 기획음반 제6집. 호남 예인의 집안에서 출생한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1960년대부터 경주에서 판소리, 창극, 무용 등 국악 활동의 기틀을 잡은 장월중선(본명 정순애, 1925~1998), 1993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병창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98년 건강이 악화되어 74세로 생을 마쳤다. 이번에 발간된 음반에는 고사창, 거문고산조, 아쟁산조, 시나위합주, 천수바라, 도량계 등 모두 6곡이 수록돼 있다. 음반에 담긴 곡들은 그리 녹음 상태가 좋지 않지만, 장월중선만의 연륜과 깊이 있는 성음, 즉흥적 요소, 그리고 여러 장르와 악기에 메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혼이 담겨 있어 전통음악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남을 것이다.



창극 신판놀음 DVD

국립민속국악원 발매

지난 2004년 4월,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른 창극 <신판놀음>의 공연 실황이 비매품 DVD로 제작되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기획한 이 공연은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심청가' 다섯마당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길놀이 마당에 이어 신영희 명창의 '이별가'가 시작되면서 '춘향가', 창극이 시작됐다. '수궁가' 마당은 남해성 명창이 토끼역을 맡으며 이끌어내고, '흥보가'에서는 박승희 명창의 인도로 흥보가 박을 타고 사당패나 제바나라의 장수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준다. 매뉴에 제작 의의, 줄거리, 배우/제작진 소개 등이 나오고, 영어로도 볼 수 있다. 명창 신영희, 남해성, 박승희, 송순성, 유영애, 고수 이성근이 참여했다.

『달의 제단』을 읽고 나서

심윤경 장편소설 / 문이당 / 2005



시 소설, 희곡은 내가 줄곧 읽어온 책 읽기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와 소설을 읽지 않게 되었다. 시와 소설의 고전은 아직도 곁에 두고 읽고 있지만, 새로 나온, 젊은 작가들이 쓴 시와 소설은 나와 멀어졌다. 책방에 가서 최근에 나온 시와 소설은 아예 살 엄두

가 나질 않았다. 그 이유는, 독자로서 감히 말한다면 읽을 수 있는, 읽을 만한 작품들이 많지 않고, 소설의 문체가 가벼워진 나머지 진중한 작가의 작품을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일 터이다.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대로 젊은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읽으면 "불편한 감정", "일말의 모욕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연극평론가로서 데뷔한 이래 문학평론가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었는데, 시와 소설을 읽지 않는 통에 그들과의 교류도 뜸해졌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횡수도 줄어들었고, 출판사에서 만나 시와 소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턱없이 증발되고 말았다. 다들 출판사장이 연극계처럼 불황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것을 확대하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위기이고, 이를 한 통속으로 묶으면 인문학의 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나부터 젊은 작가들의 시와 소설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이 점점 요원해졌다.

『달의 제단』을 읽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누가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소설에 대한 평론을 읽은 것도 아니었다.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1972년생 심윤경이라는 젊은 작가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다. 이 소설은 작가가 2002년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므로, 작가와 작품은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는 바도 아닐 듯싶다. 내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것은 신간을 뒤적거리다가 읽은 "어둑한 사당 안에서 넓은 심의 자락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두 손은 공손히 땅을 짚고 있었다"라는 소설의 첫 구절 덕분이다. 내가 구입한

이 장편소설은 2005년 1월 6쇄로 발행된 것이었다. 2004년 5월 초 판 1쇄를 찍은 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새를 거듭한 것으로 보아 이 소설은 꽤 알려진 것 같다.

이 소설은 흔히들 말하는 가벼운 소설과 크게 다르다. 그것은 문체 덕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소설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주제의 깊이, 인물들의 묘사, 구성의 전개, 언어의 구사가 소설답다. 제대해서 곧 복학할 예정인 주인공 조상룡, 그의 뒤로는 그를 피로써 움직이는 가문의 어른인 할아버지가 있고, 그를 공간적으로 억누르는 종갓집인 고택 호계당이 있다. 이 소설에는 '10여 통의 언찰'이라고 하는 옛 편지글이 현재의 사건들과 오버랩한다.

언찰은 할아버지의 8대 조모의 유품으로, 호계당으로 시집와서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죽어간 안동 김씨 며느리가 친할머니에게 보낸 것이다. 주인공은 옛 편지글을 해독하면서 가문과 자신의 "몸속을 가득 채운 악몽과 저주"(273쪽)의 역사를 알게 된다. 그것은 10대 조모가 겪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핏줄의 몸뚱이를 짓밟는 거대한 짐승의 발길, 아무런 저항 없이 바스러지며 여러 골격이 내뱉는 파쇄음, 뭉그러진 달팽이의 잔해를 지켜보아야 하는 무력한 자의 공포"(272쪽)였다. 인간은 소설의 갈피마다 지리 잡고 있으면서 오늘의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주인공 아버지의 불화, 할아버지와 손자인 상룡의 갈등, 상룡과 집안 살림을 맡아하는 달시 룯택의 딸 정실과의 관계 등이 그러하다.

나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오랜만에 소설 읽는 재미에 빠질 수 있었다. 읽기 시작해서 단박에 소설을 다 읽었는데 누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한 "집안의 집요하고 침착한 불운"(273쪽)을 쓴 소설의 재미와 놀라움이 섞여 들었다. 하나는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도 "옛 날식의 정열"(작가의 말에서)이 가득한 글쓰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와 그가 살고 있는 당대의 삶을 평균적인 잣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인이었다. 이 소설을 읽고나면, 요사이 젊은 작가들의 소설은 이렇게라고 겹잡아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진술인지 깨닫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글쓰기의 구경(究竟)을 실천하는 작가들은 있기 마련이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귀한가?

안치운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극평론가